

<http://dx.doi.org/10.20880/kler.2019.54.4.171>

어문규범의 교육 방향 탐색 —한글맞춤법을 중심으로

이기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 ii) 논문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견해이며,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I. 들어가며
- II. 한글맞춤법 교육의 연구사 검토
- III. 한글맞춤법 교육 현황
- IV. 한글맞춤법 교육의 지향
- V. 나오며

I. 들어가며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인 규범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문규범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규범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국어 교육에서는 꾸준히 어문 규범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어문규범¹⁾에 대해 교육해 왔다. 그런데 조진수·소지영(2016: 182)에서 지적하듯 어문규범 교육이 지니는 한계는 정규 교육과정(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어문규범 교육이 학습자가 언어생활에서 평생 겪게 되는 규범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다룰 수 없을 뿐더러, 단기간의 학교 교육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1) 현행 한글맞춤법은 1988년 문체부 고시 제88-1호로, 표준어 규정은 문체부 고시 제88-2호, 외래어 표기법은 문체부 고시 제85-11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은 문체부고시 제2000-8호로 각각 공표되었다. 한글맞춤법은 2014년 12월 일부 개정(문장부호), 2017년 3월 일부 개정(외래어 지명의 띠어쓰기)가 이루어졌고 외래어표기법 역시 2014년과 2017년(외래어 지명의 띠어쓰기)가 개정되었을 뿐 최초의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만큼의 규범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문규범에 대해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언어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실현되며 하나의 원리나 규정이 표현과 1:1로 대응되지 않아 맥락 등을 고려해서 규정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로서도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²⁾ 상황이 이러할진대, 일부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문규범 교육만으로 평생의 국어 생활을 책임지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문규범이 국어 사용자들의 언어 생활에서 어떠한 위치로 자리해야 할지, 교육적 처치는 어떠해야 할지 고찰해보는 일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어문규범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으로 언중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자법과 띄어쓰기로 대표되는 한글맞춤법이다. 더군다나 철자법, 띄어쓰기는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 콘텐츠뿐 아니라 각종 문화 콘텐츠에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어 언중들이 규범(한글맞춤법)에 대해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띄어쓰기 등을 활용한 언어유희뿐 아니라, 맞춤법에 맞지 않아 웃음이 유발되거나 오해가 야기되는 장면이나 대화 등도 누리소통 망상에서 심심치 않게 소통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³⁾ 이러한 상

-
- 2) 2014년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에서 전문가(국어학자, 언론인, 출판인, 교사, 국어정책전문가 등 총 52명)를 대상으로 수정이 필요한 맞춤법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수정이 필요한 규범으로 ‘두음 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부사 과생 접미사’ 등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맞춤법이 대체로 사이시옷 표기와 띄어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맞춤법의 용어나 각 조항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 답변이 제법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맞춤법 조항에 대한 이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 3)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캐서에서 판매하는 이모티콘 판매 페이지에 ‘맞춤법’을 치면 다양한 이모티콘이 검색된다. 언중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헷갈리는 맞춤법 철자(왜/되) 등을 그림과 함께 표시해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법’은 언어생활에서 메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황은 실제 대국민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에 대한 언중들의 의식과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어문규범영향평가(2005),⁴⁾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2014),⁵⁾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⁶⁾ 등의 결과를 보면 2015년 국민의 국어 의식 조사 기준 국어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는 언어예절(70.2%) 말하기(69.0%), 맞춤법/발음(55.2%)순으로 맞춤법이 세 번째로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1.8%로 상당히 높았으며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에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을 꼽은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2014년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에서 드러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82.4%가 한글맞춤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공적인 상황에서 맞춤법을 기준으로 표기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82.6%). 또한 ‘한글맞춤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84.1%)이 ‘그렇지 않

보인다.(검색일: 2019년 10월 4일)



- 4) 이 조사는 문인 및 출판사 교정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 5) 2014년 한글맞춤법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목적으로 일반인(전국 만 13세 이상 69세 미만의 남녀 1025명)과 전문가 집단(국어학자, 출판인, 언론인, 교사, 국어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글맞춤법에 대한 의식 현황을 조사한 대규모 조사다.
- 6)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 실시한 조사이다.

다’는 응답(3.6%)보다 80.5%p 높게 나타나 한글맞춤법의 필요성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글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66.8%, ‘그렇지 않다’가 8.9%로 그렇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57.9%p 높게 나타났으며, 한글맞춤법 학습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있다 (93.5%)’고 응답하였다. 주로 언제 한글맞춤법 교육을 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라고 응답하였는데(70.6%)⁷⁾ 이는 현재 교육과정상 어문규범 교육이 이루어지는 양상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⁸⁾

관련해서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도 확인 결과도 참조해 볼 수 있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를 실제 표기에 반영한다는 응답률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한글맞춤법 총칙에 대해서 제1항(형태주의와 음소주의)과 제2항(단어 띠어쓰기)의 경우 이해도에서는 ‘그렇다’ 응답률이 각각 3위와 1위로 나타났으나 수용도에서는 ‘그렇다’ 응답률이 각각 6위와 4위로 나타나 일반인들이 총칙에 대하여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⁹⁾ 또한 띠어쓰기는 총론 차원에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
- 7) ‘중학교’, ‘고등학교’는 순서대로 각각 18.7%, 9.7%였고 기타 대학교(0.4%), 책을 읽으면서(0.1%), 혼자 강의 들으며 공부(0.1%), 공무원 학원 수강(0.1%), 텔레비전이나 인터넷(0.1%) 등이 있었다.
 - 8) 그러나 이는 엄밀히 교육과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명시적’으로 개별 글자나 단어의 철자법을 강조하는 기간이 초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9) 추후 언급될 내용이지만, 한글맞춤법 교육에서 맞춤법의 원리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학습자들에게 인식하도록 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맞춤법 규정 전체를 관통하는 총론의 개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각각의 조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 10) 이는 띠어쓰기와 관련된 개별 조항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결과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띠어쓰기 관련 조항은 ‘의존 명사 띠어쓰기’, ‘단위 명사 띠어쓰기’, ‘보조 용언 띠어쓰기’, ‘성과 이름 띠어쓰기’, ‘전문 용어 띠어쓰기’로 총 다섯 문항이었는데, 이 중 ‘보조 용언 띠어쓰기’와 ‘전문 용어 띠어쓰기’가

정리하면 국민들은 국어를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나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어문규범, 그중에서도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한글맞춤법으로 대표되는 규범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의식 조사의 결과로 규범 자체가 어려우니 규범을 수정하고 쉽게 만들자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규범이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수정,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규범 자체를 자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¹¹⁾ 각각의 규범 조항이 근거 없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규범 자체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규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천착해서 살펴볼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문규범 중 특히 언중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한글맞춤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어떠한 방향을 지녀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글맞춤법 교육의 연구사 검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존의 한글맞춤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해도 및 수용도 조사 결과 모두 ‘그렇지 않다(이해하기 어렵다, 그대로 표기하지 않는다)’ 상위 5문항에 포함되었다. ‘단위 명사 띄어쓰기’ 문항의 경우도 이해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16.8%로 9위였는데 수용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25%로 1위로 나타나, 이 조항의 경우는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보다 이 조항의 내용대로 표기하는 정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1) 사실 한글맞춤법은 최근 문장부호 개정(2014), 외래어표기법 띄어쓰기 개정(2017)외에는 개정된 바가 없는데 언중들은 ‘맞춤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규범의 수정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글맞춤법 교육은 다른 어문규범 교육(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보다 항상 그 중요성을 강조받아 온 바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문법 교육의 차원에서 한글맞춤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민현식(2002, 2008, 2009), 구본관(2008), 이승왕·이병운(2010), 임성규(2011), 최규홍(2011), 이영호(2011), 주세형(2011), 구본관·신명선(2011)강보선(2013), 남가영(2014), 박종미(2015) 조진수·소지영(2016) 등 맞춤법 교육의 거시적인 논의부터 교육을 위한 관점 제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까지 상당히 다양한 층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²⁾

연구는 크게 ‘한글맞춤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과 ‘한글맞춤법’에 대한 인식, ‘한글맞춤법’에 대해 취해야 할 관점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간 이루어진 한글맞춤법 교육 연구는 주로 규범 지식을 국어의 구조에 대한 국어학적 지식, 원리 등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려는 경향을 띠었다. 민현식(2008)에서는 한글맞춤법 교육을 문법 교육 안에 속하는 교육으로 보고 문법의 구조 지식과 규범 지식을 통합한 문법 교육과정 설계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주세형(2011: 279)에서는 국어 규범 능력을 ‘국어 학적 지식을 논거로 활용하여 새로운 규범 현상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규범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로 문법 지식을 들어 국어학적 지식(국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규범 지식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남가영(2014)에서도 이어져 규범 지식이 일반적인 문법 지식과는 별개의 성격이라는 오해를 반박하며 규범 지식이 문법 지식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내면서 규범에 대한 지식 역시 문법 탐구를 통해 이해되고 체득되는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구본관(2008), 구본관·신명선(2011)과 강보선(2013)에서는 지식보다

12) 다만 이러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는 맞춤법 교육이 소략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는 규범에 내재한 원리를 교육 내용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다양한 국어 현상에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규범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조금 확장하면 가장 최근의 논의인 이지수(2019)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지수(2019)는 언중들이 어문 규범이 모순이 없고 일관되고 직관적인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태도가 규범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규범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어문 규범이 가지는 보수성, 규범성, 학문적 체계성, 가변성, 임시성 등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범을 학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¹³⁾

이러한 논의는 모두 어문 규범 교육을 ‘개별 조항을 암기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 ‘규범을 관통하는 원리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결국은 개별 조항을 이해하고,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규범에 대한 인식, 규범을 바라보는 관점 차원에서 규범 교육을 다루고 있는 조진수·소지영(2016), 이주영(2017), 노아(2018)의 연구를 참조 할 수 있다. 조진수·소지영은 언중(성인)을 ‘학습을 통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존재’로 보고 어문규범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생애

13) 이영호(2011)는 이러한 관점을 초등학교 맞춤법 교육에 직접 적용한 논의로 볼 수 있는데 그는 단편적인 활동, 쓰기에 종속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시기의 한글맞춤법 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1)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지식, 원리, 특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2) 단순 암기 대신 귀납적인 발견으로서의 맞춤법 교육을 지향하며 3) 표기법을 넘어 어휘력 신장으로의 맞춤법 교육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초등학교급에서는 원리를 적용하거나, 규정에 대한 탐구 대신 단편적인 활동이나 암기 위주로 진행되어 온 초등 수준의 맞춤법 교육도 원리 중심의, 탐구 가능한, 태도와 관점을 수립해 주는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교육 관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체적 언어사용자로서의 언중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하며 일생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마주하게 되는 규범을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언중에게 필요한 규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차원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내에서도 이주영(2017)은 규범을 적용하는 학습자의 판단 과정에 주목하여 정확성이나 규범 조항의 이해 위주로 진행되어 온 표기 교육(맞춤법 교육)을 언어 주체의 인식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학습자를 다양한 차원의 인식을 통해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지니며 능동적으로 표기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하고 정확성 차원에서 언어적 주체로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표기 교육 내에서도 학습자에게 지식을 연계하고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노아(2018) 역시 규범이 지닌 다양한 성격을 다각적으로 조망하여 국어 규범 교육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소통을 바탕으로 규범과 관련한 국어인식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범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규범 교육은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규범성을 판단하고, 학습 공동체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규범성을 해석하며, 언어 사용 오류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언어 사용'을 단순히 결과만으로가 아닌 과정, 학습자의 인식과 판단에 중심을 둔 교육 방향으로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한글맞춤법 교육은 국어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문법 교육의 궤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진행될 수 있으나, 보수적이고 고정적인 규범 그 자체를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경험과 언어 인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규범에 접근하고, 이를 탐구하여 이해하고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맞춤법 교육 연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한글맞춤법 교육 현황

1. 교육과정 내 한글맞춤법 교육 구현 양상 검토

언어 사용자가 평생 다양한 방식으로 규범(한글맞춤법)을 익힌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규범 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어문 규범(한글맞춤법) 교육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의 한글맞춤법 교육은 주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때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실제 교육과정에서 어문규범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그 중 한글맞춤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언제 어떻게 제시되어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맞춤법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으로 한글맞춤법이 체계를 갖춰 교육 내용으로 들어온 것은 6차 이후의 교육과정부터이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세 번의 개정 교육 과정에 제시된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표 1〉 역대 교육과정에 나타난 어문규범 교육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 읽기 (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띠어 읽는다. 1학년 쓰기 (1) 글씨를 바르게 쓴다.	1-2학년군 읽기 (2)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1-2학년군 쓰기 (1)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1-2학년군 읽기 (2국02-01)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1-2학년군 쓰기 (2국02-02)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띠어 읽는다.
	1학년 문법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1-2학년군 문법 (2국03-01) 글자를 바르게 쓴다. 1-2학년군 문법 (2국04-01) 한글 자모의

초등학교	<p>2학년 문법</p> <p>(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p> <p>(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p> <p>(한글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다른 표기 알기/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p>	<p>(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p> <p>3-4학년군 쓰기</p> <p>(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문법-(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p> <p>3-4학년군 문법</p> <p>(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p> <p>5-6학년군 문법</p> <p>(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p>	<p>이름과 소리값을 안다.</p> <p>[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p> <p>[2국04-03]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p>
중학교		<p>1-3학년군 문법</p> <p>(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p>	<p>9학년 문법</p> <p>[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¹⁴⁾</p>
고등학교	<p>10학년 문법</p> <p>(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p> <p>문법</p> <p>(2) 국어와 삶 (가) 국어와 규범 ① 정확한 발음 (가)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② 올바른 단어 사용 (가) 한글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나) 외래어 차용 현상을 이해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규정을 익혀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한다. (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 표기 원리와 규정을 익혀 국어를 로마자로 올바르게 표기한다.</p>	<p>국어</p> <p>(13) 한글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p> <p>독서와 문법</p> <p>(9)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한다.</p>	<p>고등학교 1학년</p> <p>[10국04-04]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p> <p>언어와 매체</p> <p>[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p>

14) 이 성취기준은 국어생활에서 발화나 문장의 기본적인 단위인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를 익혀 실제의 국어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단어의 올바른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개정 시기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보이나 공통적으로 어문규범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 6년, 중·고등 각 3년이라는 차이를 차치하더라도(중·고등 시기를 합치면 6년인데, 그 시기를 종합하면 동일한 시기에 교육 내용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시기에 맞춤법을 위시로 한 규범 교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 교육과정상 어문규범 교육이 국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중들의 인식이나,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글맞춤법에 적용하면 더욱 그러하다.

세 시기의 교육과정을 통틀어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군에서 맞춤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문법 영역에서뿐 아니라 초기 한글을 폐는 과정에서 쓰기 등을 통해서도 맞춤법 교육이 실현되고 있었다. 이는 맞춤법에 대한 인식이 글자를 익히고 사용하는 초기 단계에 반복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결과로 보인다.

맞춤법 개별 규정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이기는 하나 7차 교육과정까지는 ‘사용’의 측면에서 일종의 ‘실제’로 어문규범을 다루고 있다면¹⁵⁾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규범 자체가 ‘내용’으로 제시

발음·표기의 원칙은 어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어 규정 중 제2부 ‘표준 발음법’의 제2장과 제4장에서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잘못된 발음이나 잘못된 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학습자들의 언어생활을 개선하도록 하며,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안내한다.

- 15) 7차 교육과정의 경우, 한글맞춤법이 강조된 것은 9학년 국어지식((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외에 선택과목 국어생활(국어 규범 지식, 국어 규범의 사용), 문법((3) 국어 가꾸기 (4) 국어 사용의 규범 ①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킨다.)에서 다루는 정도일 뿐 1학년 쓰기에서 (4)낱말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쓴다 외에는 저학년에서 표준어, 표준발음, 문장구조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되고 있고 실제 언어생활과의 관련성을 좀 더 강조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에 나타난 한글맞춤법 교육의 방향은 꾸준히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강보선, 2013: 2).

- (1)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한다.
- (2) 맞춤법에 맞게 단어와 문장을 쓴다.
- (3)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갖는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규범’이 가지는 ‘정확하고 바른 언어생활’의 기준이라는 속성에 따르는 것이다. 교과서에 맞춤법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양상도 대체로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제1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머지 항들 중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여 익히게 함으로써 한글맞춤법의 이해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맞게/바르게 표기하기’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⁶⁾ 교육과정에서 ‘한글맞춤법’을 다루는 방식이 대부분 ‘정확성’을 앞세우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규범’이라는 본질적 속성에 터한 것이라 하겠으나, 규범이라는 것이 처음 정비되던 당시의 출발점을 살펴 ‘언어생활의 편리’를 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표기의 정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언어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 시피 일상생활에서의 언어는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띠며 몇 개 조항의 규범으로 모든 언어 상황을 통제/정비할 수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글맞춤법에 대해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인식이 주를 이룰 때, 우리는 ‘맞춤법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나, ‘규범을 쉽게 고쳐야 한다’고 쉽게 단언하기보다 맞춤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

특기할 만하다.

16) 이러한 경향은 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 개별 활동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이영호, 2015 참조)

이나, 태도, 교육 방법을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표 2〉 각 교육과정별 국어 교육의 목표(밑줄은 연구자)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p>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p> <p>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p> <p>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p>	<p>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p> <p>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p> <p>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u>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u>를 기른다.</p>	<p>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p> <p>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p> <p>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u>국어생활을 하는 태도</u>를 기른다.</p>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 교육의 방향은 교육과정상의 목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삼는 기조는 ‘정확성’보다 능동적, 창의적, 주체적인 학습자를 키우는데 좀 더 방법이 짹혀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한글맞춤법을 위시로 하는 규범 교육도 이러한 틀 안에서 운용이 되어

17) 정확성이 목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7차 교육과정이 마지막이다.

-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규범을 다루는 항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12연매02-11] 이 성취기준은 국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규범은 언어 사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요구하지만 구어와 문어, 문학어와 일상어, 표준어와 방언,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등에서 사용의 적절성 수준이 다르다. 규범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언어의 정확성뿐 아니라 적절성과 창의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밑줄은 연구자)

여기서 규범에 대한 ‘적절성’ 논의가 드러나 이를 주목할 만하다. 규범은 기본적으로 언어생활에서 정확성을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적절성의 수준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것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어문규범 교육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실제로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문규범(한글맞춤법)을 인식하고, 이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를 길러내고 있을까? 이는 어느 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춤법 교육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익히고 길러야 하는 태도와 인식의 문제라 하겠다.

2. 초등학교 한글맞춤법 교육 양상

언어적 주체로서의 어문규범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어문규범 관련 능력은 단순히 이해와 표현 시에 오류를 보이지 않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다.¹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문규범 교육(한글맞춤법 교육)에서 비중이 큰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을 떼기 시작하고 규범에 대한 인식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¹⁹⁾ 교육과정상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어문규범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맞춤법 교육 실태에 대해 전국 초등학교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은 전반부는 어문규범 교육 전반에 대한 질문, 후반부는 한글맞춤법 교육의 차원에서 받아쓰기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²⁰⁾ 그러나 교육부에서 2017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를 공개하면서 초등 1학년생들부터 받아쓰기를 쉽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초등 1학년 1학기 때는 받아쓰기를 내지 않기로 해 조사 결과는 주로 어문규범 교육 현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받아쓰기 관련된 내용은 참조만 하도록 하였다.

-
- 18) 대체로 맞춤법 관련 능력은 표현 시에 두드러지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틀린 표기, 틀린 띄어쓰기 등) 읽기에서도 의미의 오해, 정교한 의미 파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맞춤법 교육이 꾸준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 19) 석미순(2019)에서는 초등 시기는 다른 학령기에 비해 변화가 크고 발달 단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라 지적하면서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삼았는데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은 저학년 시기에 초기 문자 학습을 수행하고 중학년을 거치면서 규정을 학습한 후 규정에 맞는 문자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중심부에 있는 시기라 올바른 맞춤법 지도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학년을 지칭해 기술하긴 했으나 저, 중, 고학년기를 거치면서 초기 문자 학습에서 규정에 대한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시기로 규범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식 역시 처음으로 자리잡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규범 교육에서 초등학교급이 중요한 시기임을 드러내는 논의라고도 할 수 있다.
- 20) 7차 교육과정의 경우 ‘받아쓰기’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규범 교육 차원에서는 매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받아쓰기’의 방식, 내용, 시기 등은 한글 맞춤법을 교육하는 실제 양상을 살피기에 적절하다고 보아 문항에 포함하였다(후술한 이유로 결과는 참조만 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한글을 체계적으로, 쉽게, 시간을 길게 할애하여 가르친다는 점이다. 한글 교육 시간을 기준 27시간에서 60여 시간으로 늘려 연필 잡기부터 자음, 모음, 글자의 짜임 등 순서로 차근차근 가르치도록 했다. 또 한 교사용 지도서에 ‘받아쓰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어렵게 내거나 지나치게 자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를 점수화해 부담을 갖거나 상대 평가로 인한 열등감으로 한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는 항목을 넣어 저학년 시기에 받아쓰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²¹⁾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80명으로 경력을 기준으로 5년 미만 8명(10%), 5년 이상 10년 미만 14명(17.5%), 10년 이상 15년 미만 14명(17.5%), 15년 이상 20년 미만 19명(23.8%), 20년 이상 25명(31.3%)로 다양한 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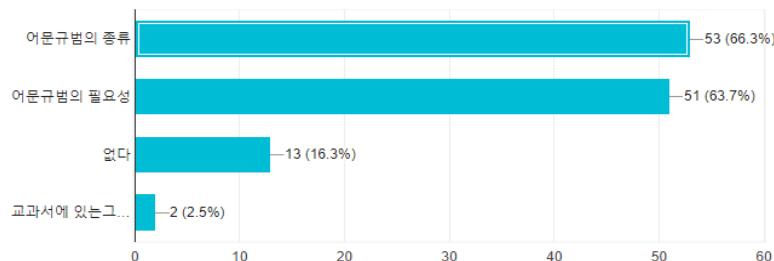
-
- 21) 이러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선행 교육, 사교육을 금지한다는 맥락에서 ‘받아쓰기’를 교육부-교육청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실제로 초등 교사들은 설문에는 ‘받아쓰기’가 금지되어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당히(50%정도) 많았다. 사교육 방지, 혹은 선행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특정한 교육 활동을 정책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은 평가에 대한 협소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받아쓰기’는 맞춤법 교육을 시행할 때 일종의 자극이나 활동으로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교육 행위이다. 이것이 설혹 시험으로 대표되는 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거나, 상벌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단순히 교수-학습 행위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이는 역으로 어떠한 활동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교육 활동으로서 받아쓰기 활동이 교육 효과가 없더든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교육 활동을 선별하는 것은 교육 상황의 특성이나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들 불만 민원 때문에 교과서 외 교육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모르고 관성적으로 실시하는 교사들이 있는데요. 교육청에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 넣으면 교사는 곤란해진 겁니다(교사 주관식 응답, 경력 20년 이상).”는 답변은 그래서 교육 정책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 준다. 또한 받아쓰기 관련 답변에서 받아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표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학생들의 띄어쓰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답변에 각각 43%, 42%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교육적 효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실제로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운용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정을 경험하고 전학년을 모두 가르쳐본 교사가 대부분이어서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이 진행되어 온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첫 질문은 학생들에게 어문규범의 종류나 어문규범의 필요성을 가르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어문규범의 종류나 어문규범의 필요성 등을 대부분의 교사가 가르쳐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둘 다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경우도 13명이나 되어, 어문규범 개괄에 대한 교육이 통일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어문 규범의 종류나 어문 규범의 필요성 등을 가르친 적이 있으신가요?(다수 선택 가능)

응답 8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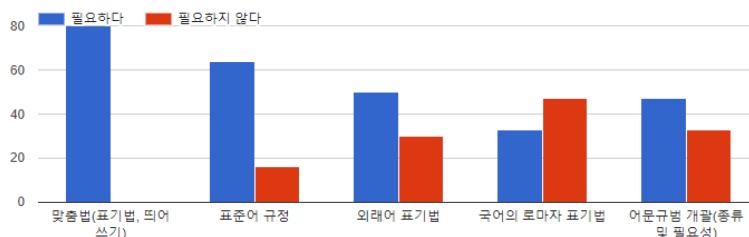


초등학생들에게 어문규범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각 항목별 응답을 살펴보면 규정별로는 편 차가 좀 있었는데 한글맞춤법 교육에 대해서는 전원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던 데 반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어문규범의 개괄에 대한 교육 필요성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있어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어문규범 교육에서는 각 규범의 적용 사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표 3〉 어문 규범 교육의 필요성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어문규범 개괄 (종류 및 필요성)
필요하다	80(100%)	64(80%)	50(62.5%)	33(41.2%)	47(58.8%)
필요하지 않다	-	16(20%)	30(37.5%)	47(58.8%)	33(41.2%)

초등학생들에게 어문 규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어문규범이 어느 학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맞춤법을 제외한 다른 규정들은 중학년, 혹은 고학년 이상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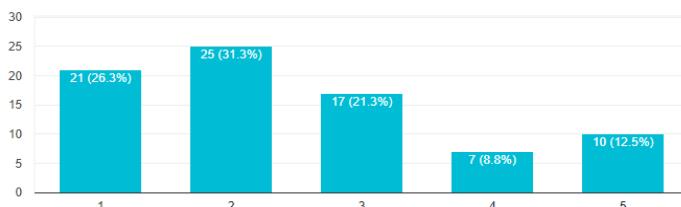
〈표 4〉 각 규정별 교육 시기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어문규범 개괄 (종류 및 필요성)
저학년(1-2학년군)	50	11	3	4	7
중학년(3-4학년군)	22	30	16	8	7
고학년(5-6학년군)	8	28	38	38	39
필요하지 않다	-	11	23	30	27
합계	80	80	80	80	80

어문규범 중에서 맞춤법(표기, 띄어쓰기)가 학생들의 작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교사가 영향을 미친다고(46명, 57.6%) 보았고, 학습자들이 맞춤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33명(41.3%)의 응답자가 그러하다고 대답하였다. (1번: 매우 그렇다 -> 5번: 매우 그렇지 않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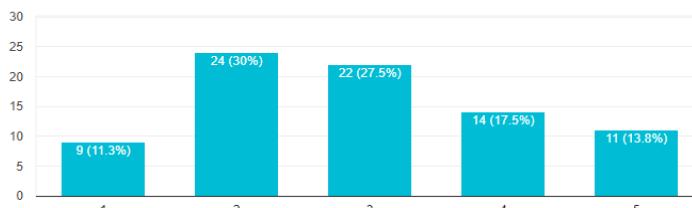
어문규범 중에서 맞춤법(표기, 띄어쓰기)가 학생들의 작문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80개



맞춤법을 잘 몰라서 작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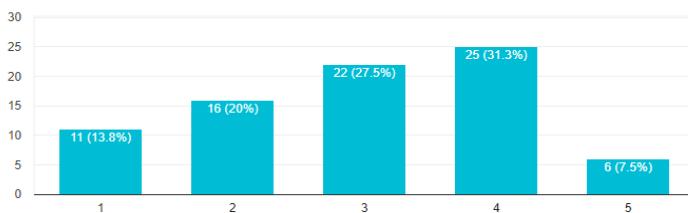
응답 80개



학생들의 작문에서 맞춤법 등의 오류를 많이 지적하거나 교정하는 편이 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어떤 학년에서 주로 오류 등을 지적해주는지를 물은 질문에서는 주로 고학년(5-6학년군)에서 맞춤법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오류를 교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하거나 교정해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11명(13.8%)로 제법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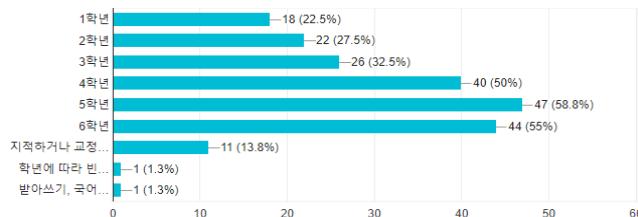
학생들의 작문에서 맞춤법 오류 등을 많이 지적하거나 교정하시는 편인가 □
요?

응답 80개



지적하신다면 대체로 몇 학년에서 오류 등을 지적해 주시는지요?(다수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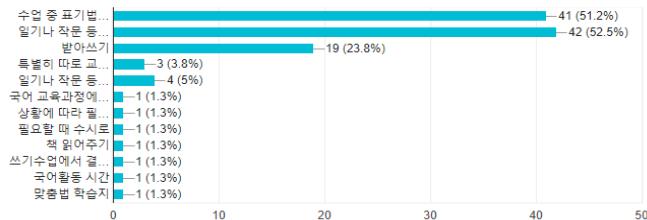
응답 80개



일반적으로 맞춤법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기나 작문 등을 검사하면서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42명, 52.5%) 대부분 수업 중 표기법이나 띄어쓰기 등 주목해서 설명(41명, 51.2%)한다는 답변이 그 다음으로 많아 대부분은 수업 시간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작문 등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교육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외로 받아쓰기를 활용한다는 답변도 19명(23.8%)로 나타나 맞춤법 교육을 위해서는 활동으로 비교적 받아쓰기가 명시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는 특별히 따로 교육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3.8%(3명) 있었으나 이외에도 국어 교육과정에 준해서 해당내용 지도, 필요할 때 수시로, 맞춤법 학습지 활용, 쓰기 수업에서 결과물을 확인할 때나 아이들이 물어올 때 등으로 꾸준히 맞춤법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학년 구분 없이) 선생님께서는 맞춤법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요?(다수 선택 가능)

응답 80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맞춤법 교육 양상을 살펴보면 규범의 의의나 가치 등을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전반적으로 맞춤법 항목을 ‘정확하게’ ‘바르게’ ‘맞게’ 쓰는 데에 초점이 더 많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에게 맞춤법(표기법 띠어쓰기) 등을 교육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고 제시한 문항에서 받은 답변들을 보면 역시 주로 교정, 퀴즈나 과제의 성격이 강했다. 독서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체득을 지향하는 경우도 제법 보였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모두 ‘바른 언어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는 ‘규범’=‘정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생기는 경향이라 여겨진다(밀줄은 연구자).

관련 영상(자주 틀리는 맞춤법)들을 보여 주거나 모둠별 맞춤법 퀴즈 대회를 간혹 실시한다./한글프로그램에 교과서 글을 타이핑하여 확인하기/원고지쓰기/일기나 국어 작품 글을 보고 교육/수업시간 중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교정/친구들끼리 교정해주기/책 읽기에서 띠어쓰기가 된 부분을 쉬면서 읽게 함/한글날 계기교육, 골든벨 퀴즈/받아쓰기 후 아이들이 부르고 교사가 쓰기/네모 공책 사용/햇갈릴 때 칠판에 써두고 같이 외우기/규범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예 찾아보기/띠어쓰기로 뜻이 달라지는 문장 예시/글을 쓸 일이 있을 때 표기법을 묻도록 함. 필요한 경우 원리를 어문 규정에 따라 설명함/맞춤법지도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 평소에는 시 따라쓰기로 자연스럽게 한글표기

에 익숙해지도록 함/보드게임이나 몸으로 표현하는 놀이 활동으로 수업하면 더 효과적이었음/일기 검사를 하며 맞춤법과 높임법을 모두 맞게 쓰면 칭찬 도장 을 줍니다. 틀린 단어는 열 번씩 쓰기 숙제로 냅니다./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칠 판에 적어보기/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받아쓰기를 한다/잘못된 띄어쓰기 찾기/ 신문 읽고 맞춤법 확인하기/틀린 글자 3번 쓰기

그러나 성인 학습자가 되어서도 막연히 맞춤법이 있는데, 잘 못 지키고 있는데, 웬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 인식하기에 앞서 오히려 어문규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문규범을 왜 지켜야 하는지, 어문 규범에 대해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 본 어문규범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단순히 규범을 암기하고(기억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규범을 인식하고, 언어생활에 능동적으로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그리고 초기에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익히는 과정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학습해 바른 언어생활을 향유하는 학습자가 아니라 언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학습자로 키워내야 하는 교육 내용이 구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한글맞춤법 교육의 지향

어문규범 관련 능력은 교양 차원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이 아니라 매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요하는 능력이다. 한글맞춤법 교육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익히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설명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어 단위로 띄어 쓰게 하거나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조사나 일부의 의존명사 등에 대한 띄어쓰기 정도를 제외하면 단순한 습관이나 암기로 띄어쓰기를 하기에는 다양한 판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례들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잘 나다' '잘나다'의 띄어쓰기 혼동 사례(네이버 웹툰 '송곳(4-25)')

가령 〈그림 1〉의 사례를 보면 형용사 '잘나다'를 써야 하는 장면에서 '잘나다'라는 '부사+동사'의 형태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저 장면에서는 형용사 '잘나다'의 뜻 「2」 똑똑하고 뛰어나다.'을 적용하여 '잘나다'로 붙여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만²²⁾ 맥락상 동사 '나다'를 활용하여 '잘 태어나다' '잘 나고 자라다' 정도의 의미로도 가능한 면이 있어 단순히 '틀렸다'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²³⁾

22) 저 대사 중 '뒷돈'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로 불여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어의 띄어쓰기를 모두 특정한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23) 사전에서 '나다'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굵게 표시한 부분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굵은 표시 연구자, 뜻풀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나다01 나, 나니) [1] 「동사」 [1] 【…에】 「1」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 「2」 【…으로】 길, 통로, 창문 따위가 생기다. 「3」 어떤 사물에 구멍, 자국 따위의 형체 변화가 생기거나 작용에 이상이 일어나다. 「4」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 [2] 【…에】 【…에

맞춤법의 경우는 분명한 기준이나 표기가 있어 습관적으로 익히는 일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띄어쓰기의 경우에는 확실히 의미와 맥락, 해당 단어의 품사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한 측면이 있다. 맞춤법 역시 발음과 표기가 같지 않은 경우 왜 발음과 표기가 같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나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의 대상이거나 ‘같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교육적 한계가 분명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문 규범이 평생에 걸쳐 한 인간의 언어 활동에 관여한다는 점과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후의 언어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규범 적용 상황을 모두 다룰 수 없다는 점은 교육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초등학교 초기’에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원리를 바탕으로 ‘일부의 조항’을 설명하여 규정을 익히게 하는 방식으로는 비슷한 한계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진수·소지영(2016: 182)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인식 전환에 동의하며 성인(학습자)를 ‘학습을 완료한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학습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존재’로 상정하고 학교교육을 포함한 생애 교육 차원에서 어문규범 교육, 한글맞춤법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1」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2」농산물이나 광물 따위가 산출되다. 「3」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다. 「4」인물이 배출된다. [3]【…에/에게】「1」이름이나 소문 따위가 알려지다. 「2」문제 따위가 출제되다. 「3」흥미, 짜증, 용기 따위의 감정이 일어나다. 「4」구하던 대상이 나타난다. [4]【…에서/에게서】「1」돈, 물건 따위가 생기다. 「2」생명체가 태어난다. 「3」소리, 냄새 따위가 밖으로 드러난다. 「4」신체에서 땀, 피, 눈물 따위의 액체 성분이 흐르다. [5]【…이】「1」((…이) 성분은 조사가 붙지 않은 단독형으로 쓰인다) 어떤 나이에 이르다. 「2」병 따위가 발생하다. 「3」생각, 기억 따위가 일다. 「4」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5」기풍, 몇 따위가 더 나아지다. 「6」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7」속도, 열, 빛 따위의 속성이 드러난다. 「8」맛이 생기다. [6]「1」햇빛 따위가 나타난다. 「2」사람 됨됨이나 생김새가 뛰어나다. 「3」밖으로 나오거나 나가다. [7]【…을】「1」철이나 기간을 보내다. 「2」살림, 세간 따위를 따로 차리다. [8]『복한어』선거나 추천 따위를 통하여 일정한 일을 맡을 사람이 나타난다.

맞춤법 교육 혹은 어문규범 교육이 국어 교육의 큰 틀과 궤를 달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국어교육에서 목표하는 학습자가 단순히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이기보다는 ‘주체적인 언어 사용자’여야 한다고 할 때 어문규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명선(2013)에 따르면 언어적 주체는 ‘자아’와 ‘공동체’의 긴밀한 관련을 인식하고 ‘나’와 ‘사회 문화’의 빌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자라는 점에서, ‘자아’와 ‘공동체’를 하나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언어적 주체는 ‘자아’와 ‘공동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주체적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국어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맞춤법으로 대표되는 어문규범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며 이것이야말로 언어생활에서 ‘공동체’적인 속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언어적 주체로서 어문규범 교육(맞춤법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은 학습자는 특정한 시기에 어떠한 지식이 완성되는 학습자라기보다는 꾸준히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규범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공동체의 언어문화와 빗대어 점검하는 태도를 갖춘 학습자라 할 수 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규범에 의지해 확인하기보다는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규범이 왜 필요한지, 어떤 장면에서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장면에서 규범이 의도적으로 뒤틀려있는지까지 등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 꾸준히 학습하는 태도를 지닌 학습자여야 할 수 있다.²⁴⁾

24) 문법교육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의 핵심은 ‘지식’이나 ‘활용’,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및 태도의 문제(신명선 2007: 453)라는 지적도 이러한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 띄어쓰기를 활용한 언어유희(인스타그램 hibin, 2016년 3월 22일)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으나 규범을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림 2〉처럼 어문규범을 비틀고 응용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이해하고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용자로 자리하는 데까지 나가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맞춤법 교육은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으로 자리하고 학령기 교육은 이를 전제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V. 나오며

본고에서는 규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체적 언어 사용 자라는 학습자를 상정하여 이를 위한 어문규범 교육 방향을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의 첫발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어문규범 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본질적으로 초등학교의 맞춤법 교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 방향이나 교육 내용보다 학습자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피로감, 혹은 어려움 학습 곤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받아쓰기 등의 특정한 맞춤법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의 실제 작문 자료 등을 검토해 받아쓰기를 통한 맞춤법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소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주체적 언어 사용자로서 자리하기 위한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안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9.10.31. 투고되었으며, 2019.11.19. 심사가 시작되어 2019.12.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보선(2013), 「한글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31, 1-30.
- 구본관(2008),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 한글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7, 261-297.
-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261-297.
- 국립국어원(2010),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4),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 서울: 국립국어원.
- 남가영(2014), 「국어 규범교육과 문법교육의 관계 설정 양상」, 『우리말글』 62, 1-44.
- 노아(2018), 「국어 화자의 국어인식 양상에 기반한 국어 규범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8, 71-129.
- 민현식(2008), 「한글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 문법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 21, 7-75.
- 민현식(2009), 「국어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4, 1-56.
- 박종미(2015), 「한글맞춤법 이해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우리말글』 64, 87-115.
- 석미순(2019),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에 따른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명선(2007),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8, 423-458.
- 신명선(2013), 「언어적 주체 형성을 위한 문법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43, 83-120.
- 유예서(2015), 「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 실태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호(2011),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5, 239-265.
- 이주영(2017), 「표기 의식 고양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수(2019), 「한글 맞춤법 해설(2018)'의 개정 내용 분석 및 교육적 활용 방안」, 『반교어문연구』 51, 147-168.
- 정영호(2010), 「발음 및 표기 오류의 음운 교육적 접근」, 『우리말글』 48, 1-27.
- 정희창(2011), 「한글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 내용 구성」, 『문법 교육』 14, 99-122.
- 조진수·소지영(2016), 「생애교육 관점의 어문 규범 교육 방향 탐색」, 『청립어문교육』 57, 181-209.

주세형(2006), 「국어지식 영역의 규범성 패러다임: 창의성과 균형 잡기」, 『국어교육』 119, 397-429.

주세형(2011), 「해암 선생이 남긴 국어 규범 교육의 원리」, 『선청어문』 39, 257-295.

주세형·신호철(2011),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8, 85-111.

최규홍(2011), 「초등학생의 맞춤법 지도 방법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441-462.

어문규범의 교육 방향 탐색

—한글맞춤법을 중심으로

이기연

국어 교육에서는 꾸준히 어문 규범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어문규범에 대해 교육해 왔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문규범 교육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언어 현상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글맞춤법을 중심으로 연중들의 어문규범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 양상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밝히고 교육과정과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글맞춤법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주로 개별 표기 차원의 정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맞춤법 교육 방향을 평생을 두고 학습하면서 성장해 가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 생애 교육 차원에서 어문규범 교육, 한글맞춤법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규범의 개별 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대신 어문규범의 가치나 의의, 규범의 필요성, 규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세부 내용이 구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국어교육, 어문규범, 어문규범 교육, 평생 교육,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철자법

ABSTRACT

Exploring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Rules —Focus on Hangeul Spelling

Yi Kiyou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included language norms in the curriculum and taught it to students steadily. However, there are limits in responding to the language phenomena encountered in daily life only through the education provided in the formal curriculum. In this paper, I foun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recognition of grammar and the actual usage of the language, particularly in the spelling of Hangeul, and confirmed the situation of Hangeul spelling education based on the curriculum and teachers' perception. It was suggested that education regarding grammar norms and Hangeul spelling should be planned and executed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aimed at "an ever-growing being as a learner." Therefore, the curriculum needs to be devised so as to emphasize education that cultivates the value or significance of the norm, the necessity of the norm, and a desirable attitude toward the norm, instead of education centering on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norm.

KEYWORDS Korean Education, Korean Language Rules,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Rules, Continuing Education, Hangeul Spelling, Spacing, Spelling System